



◀ 전남 레안드롱

전남 '용병 투혼' vs '군인 정신' 광주



15일 광주서 맞대결 국가대표 빠져 아쉬움

광주 상무가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상승기류에 올라섰다.
 광주는 지난 1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삼성 하우젠컵 2007 B조 4라운드 홈 경기에서 이윤섭, 여승원의 연속골로 경남 FC를 2-0으로 꺾고 컵 대회 2승째를 올렸다.
 컵대회 전적 2승 1무 1패를 기록한 광주는 B조 선두 서울에 이어 2위로 올라섰다.
 광주는 또 2003년 K-리그 참가 이후 4년 19일, 총 163경기만에 전 구단(13개 구단)을 상대로 한 승리 기록도 함께 세웠다.
 특히 이날 승리는 이번 시즌 광주의 홈 경기 첫 승이어서 그 기쁨도 두배가 됐다. 2003년 3월 23일 울산 현대와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K-리그에 입성한 광주는 6경기만인 같은해 4월 27일 부천 SK(현 제주유나이티드)를 2-1로 누르고 첫 승을 거뒀다.
 하지만 그 후 내리막길로 접어들었고, 2003년 10월, 2004년 8월, 2005년 13월, 2006년 14월 등 정규리그 최하위권만 맴돌았다.
 군인팀인 탓에 용병은 커녕 부족한 전력조차 보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력 하나 만큼은 으뜸이었고, 강팀만 만나면 유독 강

한 모습을 보이는 독특한 팀 컬러로 인기를 유지해 왔다.
 올 시즌도 '강팀 컬러'의 저력은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5연승을 질주하던 서울과 득점없이 비기더니, 지난 4일에는 최강 전력을 자랑하는 '레알' 수원을 2-1로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팀명 앞엔 어느새 '고춧가루 부대'라는 애칭도 붙었다.
 광주 상무는 컵대회의 상승세를 몰아 오는 15일 안방에서 '형제'인 전남을 상대로 또 다시 승리의 찬가를 부르겠다는 각오다.
 광주의 선봉장엔 남궁도와 강용이 투톱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우연히도 전남이 친정팀이다.
 미드필드진에 이동식, 김영근, 전광진 등을 배치하고, 수비는 안정감이 돋보이는 한태유와 이윤섭, 김윤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대표 미드필더' 김승용이 올림픽 국가대표팀에 차출된 게 아쉽다.
 이에 맞서는 전남의 전력도 만만치 않다.
 주전 수비수 김진규와 강민수를 비롯해 공격수 백승민 등이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됐지만, 레안드롱을 중심으로 산드로와 산드로 C 등 공격 자원이 풍부하고, 송정현, 임관식, 김태수, 김승현 등 미드필드진도 든든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남궁도

맨유
 ↓
 AC밀란

결승행 다툼

첼시
 ↓
 리버풀



4강 확정

박지성(26)이 뛰고 있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명문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이탈리아 강호 AC밀란과 '꿈의 무대' 결승 티켓을 다투게 됐다.
 맨유와 첼시에 이어 리버풀도 PSV에인트호벤(네덜란드)을 제치고 준결승에 합류해 '축구종가' 잉글랜드는 세 팀이나 4강에 오르는 초강세를 보였다.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쟁은 결국 맨유-AC밀란, 첼시-리버풀의 4강 대결로 압축됐다.
 AC밀란은 12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06~200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원정경기에서 전반 27분 클라렌스 시도로프의 결승골과 4분 뒤 필리포 인차기의 추가골로 분데스리가 최강 클럽 바이에른 뮌헨을 2-0으로 제압했다.
 4일 홈 1차전에서 두 골이나 내주고 2-2로 비겨 2차전에 부담을 안았던 AC밀란은 결국 1, 2차전 합계 4-2로 승리, 2004~2005 시즌부터 3년 연속 대회 4강에 올랐다.
 2006 독일 월드컵 우승국 이탈리아에서 유일하게 4강에 오른 AC밀란은 맨유와 결승 티켓을 다툰다.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도 직접 이날 경기를 관전하며 준결승 전략을 구상했다.
 초반은 바이에른 뮌헨의 분위기였다.
 전반 8분 마르코 판 보멜 본델의 크로스에 이은 안드레아스 오틀의 왼발 슈팅을 AC밀란 수비수가 골라인 앞에서 걷어냈고, 4분 뒤에는 루카스 포돌스키의 강력한 왼발슛이 골키퍼 디다의 선방에 걸렸다.
 뮌헨의 공세를 차분히 차단해 낸 AC밀란은 전반 27분 시도로프의 한방으로 승부를 결정지었다.
 아크 정면에서 카카의 패스를 받은 시도로프는 오른쪽으

로 공을 몰아 상대 마크를 따돌리고 오른발 슈팅으로 "거미손 골키퍼" 올리버 칸이 버틴 뮌헨의 골문 왼쪽 구석을 갈랐다.
 인차기는 4분 뒤 쐐기를 박았다. 시도로프가 감각적인 힐 패스로 상대의 일자수비를 무너뜨리자 단독 찬스를 맞은 인차기가 아크 정면에서 오른발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뮌헨은 후반 시작과 함께 오틀 대신 산타 크루스를 투입하며 반격에 나섰다. AC밀란 골키퍼 디다의 선방과 견고한 수비벽에 막혀 결국 안방에서 완패를 당하고 말았다.
 리버풀은 홈 구장 안필드에서 열린 예인트호벤과 8강 2차전에서 후반 22분 피터 크라우치의 결승골로 1-0으로 이겼다. 이미 원정 1차전에서 3-0 완승을 거둬 4강 가능성을 높였던 리버풀은 1, 2차전 합계 4-0으로 준결승에 올라 첼시와 결승행을 다툰다.
 리버풀은 2004~2005 시즌 준결승에서도 첼시와 맞붙어 1, 2차전 합계 1-0으로 승리하며 결승에 올랐고, 결국 우승컵을 들어올린 바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지성 12년간 100억

나이키와 장기 후원계약 체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한국 축구의 '과위 엔진' 박지성(26)이 불혹(不惑)을 바라볼 나이까지 '나이키 맨'으로 남게 됐다.
 나이키코리아는 다음 달 말 용품 후원 계약이 끝나는 박지성과 올해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2년간 장기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981년 2월25일생인 박지성은 2019년이면 만 38세이자 우리 나이로 39세가 된다.
 활동량이 많은 미드필더를 맡고 있는 데다 박지성의 플레이 특성을 고려할 때 계약 만료 시점까지 현역 선수로 뛸 수 있을지는 보장할 수 없지만 코치 등 지도자 생활을 하더라도 나이키의 후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나이키코리아는 "박지성 선수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된 이번 계약은 한국 내 스포츠 마케팅에 새 장을 연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박지성이 세계 최정상급 스타 플레이어로 성장하도록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나이키는 박지성에게 후원 금액 규모에서 국내 최고 선수 대우를 해왔지만 구체적인 계약 금액을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지성 주변 인사들에 따르면 나이키의 후원 금액은 매년 다른 액수가 지원되지만 총액으로 따지면 1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박지성의 스폰서십 지원 규모는 나이키의 후원을 받는 다른 종목의 특급 스타들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지만 축구가 단체 경기종목이란 점을 감안하면 과격적인 액수로 보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영표 수술 여부 오늘 최종 결정

왼쪽 무릎 바깥쪽 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한 이영표(30·토트넘)의 수술 여부가 13일 최종 결정된다.
 토트넘의 마틴 울 감독은 12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www.tottenhamhotspur.com)를 통해 "이영표가 유럽축구연맹(UEFA)컵 8강 2차전(13일 새벽 3시45분)에 출전하지 못한다"며 "부상에 대해 13일 2차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시즌을 마감한 이영표의 수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에이전트사인 (주)지엔은 "한국시간으로 13일 오후나 늦어도 14일 새벽에는 구단으로부터 수술 여부에 대한 통보가 올 것"이라며 "구단과 이영표가 서로 의견을 조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영표는 6일 치러진 UEFA컵 8강 1차전 세비야 원정경기(1-2패)에 선발출전해 90분을 모두 소화했고, 경기 뒤 왼쪽 무릎에 통증을 느껴 정밀진단을 해본 결과 무릎 바깥쪽 인대가 찢어져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최재호기자 lion@

■ 박지성 "AC밀란 또 만났네"

에인트호벤 시절 선제골감동 다시 기대

2005년 5월5일(이하 한국시간). 2004-2005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이 열린 네덜란드 에인트호벤 필립스 스타디움에서 한국 축구사의 한 페이지가 새로 쓰였다.
 '꿈의 무대'로 불리는 챔피언스리그 본선에서 처음으로 한국 선수가 골 세리머니를 펼친 것이다.
 주인공은 바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다.
 박지성은 PSV에인트호벤(네덜란드) 소속이던 당시 AC밀란(이탈리아)과 대결에서 전반 9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다.
 상대 미드필드 왼쪽에서 공을 잡은 박지성은 전방에 있던 얀 페네호르스트 헤셀링크에게 찰라준 뒤 페네티지역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헤셀링크가 AC밀란 수비수 야프 스타를 제껴라다 공이 흐

르자 쇄도하던 박지성이 골지역 왼쪽에서 벼락같은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챔피언스리그 7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오던 밀란의 철벽수비를 무너뜨린 한 방이었다.
 특히 경기를 지켜본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의 눈도장을 받아 박지성을 프리미어리그로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된 골이었다.
 1차전에서 0-2로 패해 공지에 물린 에인트호벤은 박지성의 골을 시작으로 공세를 이어갔고, 결국 후반 20분 또 한 명의 태극전사인 이영표(토트넘)의 날카로운 크로스에 이은 필립 코퀴의 헤딩골로 점수차를 벌려 역전극을 연출하는 듯했다.
 만약 2-0으로 끝났다면 1, 2차전 합계 2-2로 갈아져 연장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
 하지만 종료 직전 에인트호벤의 꿈이 깨졌다. 인저리타임

이 적용되던 후반 46분 AC밀란의 마시모 암브로시니에게 통한의 골을 내주고 무릎꿇었다.
 에인트호벤은 1분 뒤 코퀴의 추가골로 3-1 승리를 거두며 합계 3-3을 만들었으나 원정 다득점 우선 원칙에 따라 결승 티켓을 밀란에 넘겨졌다.
 박지성이 이제 소속팀을 바꿔 2년 만에 다시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무대에서 AC밀란을 만나게 됐다.
 박지성의 맨유는 AS로마(이탈리아)를 꺾고 4강에 올랐고, AC밀란은 바이에른 뮌헨(독일)을 제치고 준결승 무대에 섰다.
 2006~2007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은 현지시각으로 오는 24일과 25일 1차전, 다음달 1일과 2일 2차전이 치러진다.
 박지성은 현재 무릎을 다쳐 빠르면 이 달 말 복귀가 가능할 전망이다. 퍼거슨 감독은 지난 10일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2주 가량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결과가 심각하지 않다 해도 당장 박지성의 4강 1차전 출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차전 출전은 기대해 볼 만하다. 박지성이 다시 그라운드에서 나서 2년 전 결승행 좌절을 설욕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